국가 경쟁력, 기술기능인 우대에서 시작

기 고
송 응 범
서울지역본부장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0달러 수준이던 1953년부터 2017년 사이에 440배 증가했고, 지금은 3만2000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수 없을 만큼 경제발전에 있어 지난 70년 동안 큰 성취를 이루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원동력중에서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을 이룬 각 분야의 기술기능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숙련기술인들의 양성에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8:2정도로 이론 위주였던 공업고등학교 교육에서 실기 교재를 발간하고 실기 교사도 확충하며 졸업을 위해 반드시 기능급수에 따라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재학 중 정밀가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간 1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자격증 소지 졸업생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당시 공업고등학교의 입학자원은 상위 약 10% 이내의 우수한 학생이 가는 곳이 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사회의 곳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숙련기술인 출신 사회적 리더들은 현재까지 대한민국명장이 679명, 숙련기술전수자 140명, 기능한국인 190명,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636명, 우수숙련기술자 622명, 산업현장교수 1057명 등 3324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특성화고교의 입학율이 매우 저조하다.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고교 수는 일반고가 2013년 183개교에서 212개로 증가한 반면 특성화고는 71개교에서 69개로 감소했다. 기술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저하는 해마다 열리는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4월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기술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기술·기능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던 출발점이 바로 기능경기대회이다. 최근 직면하는 어려운 국제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국내 노동시장에 있어 고학력 미취업자의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그간의 묻지마식 대학진학(진학률 72%)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 직업교육을 통한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초급-중급-고급 기능·기술인의 수요와 산업별 인력수요에 대한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자격취득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기능인 우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개최되는 17개 광역 시도 기능경기대회에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와 재교육에 따른 개인과 기업에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해소할수 있고, 조기 입직을 통한 일 경험을 근간으로 제2의 기술기능인 출신의 사회적 리더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노조 회계 공시가 필요한 이유

기자 수첩
박 미 경
(자본시장부)

최근 회계업계의 화두는 단연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다.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계자료의 내지 제출 요구는 월권"이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의 노조 의무에 근거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자료 제출 노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가 86곳(26.9%)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다.

노조는 회계자료 미제출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걸 말한다. 회계 자료 제출은 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사업 수행 주체의 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방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521억원(고용부 177억원, 광역자치단체 134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조합비 연간 세액공제(15%) 금액도 3700억원에 달한다.

노조 등 비영리법인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꼼꼼한 회계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셈이다.

깜깜이 회계는 온갖 내부 비리로 이어진다. 잊을 만하면 노조비 횡령 및 배임 문제가 불거진다. 노사 법치가 확립돼야 기업 투자가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조가 정치적 투쟁을 일삼으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반대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노조 본연의 기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다. 사측에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노조집행부의 회계 자료 제출 거부는 '내로남불' 그 자체다. 정치적 투쟁을 멈추고, 회계 공시 의무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mikyung96@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 힘
문제출제: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3	9	
6			8		9			
	6							
			9	5	1			
							8	
			3		5			7
	1	4		9				
					4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8		
		1			7			
9							1	
5	4			7				
			9		1			
				3			7	2
	2							6
			6			3		
		9	8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정답

7	5	9	6	1	3	8	2	4
4	8	1	5	2	7	3	9	6
6	3	2	8	4	9	7	1	5
1	6	5	4	3	8	9	7	2
8	2	7	9	5	1	4	6	3
9	4	3	2	7	6	5	8	1
2	9	6	3	8	5	1	4	7
5	1	4	7	9	2	6	3	8
3	7	8	1	6	4	2	5	9

6	5	4	1	2	9	8	3	7
2	3	1	5	8	7	6	9	4
9	8	7	3	6	4	2	1	5
5	4	3	2	7	6	1	8	9
8	7	2	9	5	1	4	6	3
1	9	6	4	3	8	5	7	2
4	2	8	7	1	3	9	5	6
7	1	5	6	9	2	3	4	8
3	6	9	8	4	5	7	2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3월 23일 (음 2월 2일) http://www.saju4000.com

쥐 — **36년생** 자신만이 아는 재물정보가 소중한 것 같지만. **48년생** 오후 휴식형 저녁을 먹는다. **60년생** 좋은 표정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운이 다가온다. **72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된다. **84년생** 시대에 맞춘다 해도 옛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는.

소 — **37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중히. **49년생** 협력자를 구하고 일을 진행. **61년생** 숙명은 바꿀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는데. **73년생**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들 있다. **85년생** 참으면 편하다.

호랑이 — **38년생** 떠난 인연에 연연해하지 마라. **50년생**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2년생** 운동과 휴식이 겸비될 때 업무능력과 효율성도 증가. **74년생** 일에 치여 삶을 실종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도록. **8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행운이 따른다.

토끼 — **39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5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3년생** 남은 노후를 위해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 **7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87년생** 책임감이 강하지만 안달성향도 있으니 신중.

용 — **40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52년생** 퇴직금이 있어 희망이 있다. **64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도전. **7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종일 운전주의. **88년생** 퇴직후 편하게 살고 싶다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뱀 — **41년생** 집안청소를 적극적으로. **53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65년생** 시부모님께 시큰둥하지 말도록. **77년생** 비가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쉬어가라. **89년생** 살다보니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말 — **42년생** 먹고사는 걱정을 더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축복인가. **54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았다. **66년생** 소리도 없는 적막강산. **78년생** 부모님이 전적으로 믿어주니 힘이 난다. **90년생** 누구나 가슴에 품은 뜻이 있게 마련.

양 — **43년생** 살아보니 조상님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55년생**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국. **67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당한다. **7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91년생** 꽃 봄비가 내리니 세상이 환하다.

원숭이 — **44년생** 탓보다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56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온다. **68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80년생**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를. **92년생** 겸손함을 키우고 분별하는 생각을 줄여보면 발전이 온다.

닭 — **45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 **57년생** 이간질하지 않는 것 반려동물학대하지 않는 것도 품격이다. **69년생** 불평을 떠드는 것도 소음. **81년생**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데 모르는 곳에서 도움을 준다. **93년생** 절약한다면서 남 피해주지는 말아야.

개 — **46년생** 지하철에서 계단조심. **58년생** 부드러움 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날. **70년생** 일하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다. **82년생**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 **94년생** 실력을 키우다보면 길상한 복은 자연히 빛을 따라 모인다.

돼지 — **47년생** 남의 험담을 들어도 조용히. **59년생** 마음자리를 바꾸면 개운이 된다. **71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83년생** 팔자의 특정된 속성의 영향을 받는 것 즉 숙명이라 볼 수 있다. **95년생** 인생이 박하다 해도 선함이 모이면 부귀의 빛이.

김상회의 四季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당연히 헤밍웨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유명 단편소설인 노인과 바다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자 했던 노인과 상어와의 험난한 싸움을 그리고 있다. 청새치를 잡기위해 바다로 나간 노인은 80일이 넘도록 허탕만 쳤다. 그러다가 그토록 고대하던 커다란 청새치를 잡게 되는데 어디선가 상어가 나타나 공격을 받게 된다. 노인은 작살과 노, 몽둥이를 사용해가며 상어를 무찌르는 데는 성공하지만 청새치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된다.

인생의 목적을 이룬 꿈인 청새치와 상어로 대변되는 시련 고난과의 싸움을 대입해볼 수 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목적을 이룬다 해도 그 과정은 시련과 고난이고 결국 어렵게 구한 것을 빼앗기지만 굴복하지 않고 맞서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헤밍웨이는 소설의 한 구절처럼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반드시 노인만은 아닐 진데 각별히 노인을 등장시켰다. 이유가 있으리라본다. 살만큼 산 나이가 되면 대충 포기에 익숙할 법인데 젊은 시절의 힘과 근육이 빠져나간 나이에도 그는 상어에 굴복하지 않았다. 고난에 맞섰다. 대한민국은 노령혜택적용 연령의 상향을 고민 중이다.

만65세가 되면 지하철무임승차 등의 혜택을 주어 왔는데 계속 심화되는 지하철적자 해소의 한 방법으로 노령연령을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상향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과거에 비해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협회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각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지하철 무임탑승 연령문제를 보면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렸다. 험난한 바다 상어 대적하는 그 노인을….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